

초등학생의 학교단체 수련활동 경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의 차이분석*

김희애*·장여옥**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학교단체 수련활동 경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학교단체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4곳의 초등학생 5, 6학년 350명을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증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중 초등학교 6학년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과 학급응집력의 하위요인인 학급분위기, 상호신뢰, 일체감, 의사소통에서 5학년보다 높았다. 반면에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은 차이가 없었다. 둘째, 초등학생들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참여횟수, 참여정도, 참여만족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인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 차이가 있었다. 셋째, 초등학생들은 청소년수련활동의 참여횟수, 참여정도, 참여만족도에 따라 학급응집력인 학급분위기, 상호신뢰, 사기, 일체감, 의사소통에서 차이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학교단체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수련활동, 학교생활적응, 학급응집력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초등학교는 교사 및 또래와의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사회관계의 장이면서 학업성취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곳으로 청소년들이 학교에 대한 적응, 대인관계, 학업관련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Sears & Marshall, 1990). 또한, 청소년들은 경쟁적인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학교에서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하

* 이 논문은 제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석사졸업, led0111@naver.com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초빙교수, yochang@kw.ac.kr

는 것이 아니라 친구를 경쟁자로 여기며 학교부적응, 불안, 낮은 대인관계 능력, 비행, 우울과 같은 심리적 및 정서적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다(심은실, 김영혜, 2011; 유희애, 김영혜, 2017; 이미리, 2003).

한국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의 문제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청소년의 균형적인 성장발달에 중요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의 법률을 마련하였다(이광호, 변윤언, 2007). 「청소년활동진흥법」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청소년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해볼 수 없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하였다(김상미, 남진열, 2013).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창의적 활동중심의 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단체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학교단체 청소년수련활동은 학급·학년단위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교육활동으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야영, 심성훈련, 해양수련 등과 같은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행하는 당일 혹은 1박 2일 이상의 숙박형 활동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학교단체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들에게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창의적 활동중심의 체험학습을 통해 자율성, 책임성, 공동체 의식, 체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즉, 청소년수련활동은 정서배양, 심신수련, 자질배양, 사회봉사 등의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 및 교육활동이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개념, 자기통제력, 사회화 과정 등 청소년의 내적·사회적 발달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김상미, 남진열, 2013; 김소희, 권일남, 2008; Hattie, Marsh, Neill, & Richards, 1997).

아동이 가정을 벗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사회화 교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곳이 초등학교이므로 학교생활적응은 중요하다(김지선, 진현정, 2017). 학교생활적응이란 청소년이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교사나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학교활동과 학교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만족하는 결과를 얻으며, 학교규범을 준수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유진이, 2007; 이학래, 김석규, 2003; 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청소년

활동이나 체험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았으며(고관우, 남진열, 2011; 이응택, 곽현, 이은경, 2016; 전명순, 김태균, 2014), 결과적으로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수련활동은 학교수업과 학교규범을 따르면서 자기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증진 등의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이 되며, 학급에서 청소년들이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원들 간에 친밀하고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단결하는 학급응집력을 높여준다(유재충, 이상진, 2012; 유진이, 2007). 학급응집력이란 학급이라는 집단 내 형성되는 구성원 간의 긍정적인 정서로서 집단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며 상호간의 신뢰와 일체감을 바탕으로 학급의 공동목표를 추구하고 발전해 나가는 힘이다(엄인하, 2015; Yalom, 1995). 학급응집력이 높은 구성원들은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가 일치되어 학급생활에 대한 적극성, 협동심, 책임감 등이 강하며, 타인에 대한 수용과 이해가 높고,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 형성 및 친밀한 교우관계를 형성한다(채연희, 2003). 반면에 학급응집력이 낮은 구성원들은 자기표현이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방어적이며,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정미, 2004). 즉, 학급응집력은 학급 구성원들 간의 대인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학급 분위기를 만들고,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성원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며, 공동의식을 발휘하여 학급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학급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학교단체 수련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과의 유대관계를 경험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협동심을 함양하여 집단의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이루어진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성, 자기효능감, 자기가치, 학교생활적응, 리더십 등 내적 및 외적인 요인들과 관련된 연구들(김소희, 권일남, 2008; 유재충, 이상진, 2012; 전명순, 김태균, 2014)이었다. 반면에 학교단체중심의 청소년수련활동의 참여횟수, 참여정도, 참여만족도 등과 같은 참여경험이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이나 또래와의 협동 및 단결 등을 알아보는 학급응집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과도한 입시위주의 교육환경,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 부모의 과잉보호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타인에 대한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면서 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을 둘러싼 가정, 학교, 사회 등은 이들이 수련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올바른 성찰과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바탕으로 또래집단과 함께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수련활동경험은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여러 형태의 어려움이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학교단체 수련활동 경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교단체 청소년수련활동 경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교단체 청소년수련활동 경험에 따른 학급응집력은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의 초등학교 중에서 학교단체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4곳의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2019년 9월 17일부터 10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하여 각 초등학교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수업시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규수업 이후의 시간을 활용하여 설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378부의 설문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과 무응답 항목이 있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350부를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청소년수련활동

본 연구의 학교단체 청소년수련활동 경험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참여횟수, 참여정도, 참여만족도로 이루어진 설문지로 구성하였다.

2)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의 학교생활적응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임지현(2009)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총 20문항으로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요인(5문항), 학교 친구에 대한 적응 요인(5문항), 학교공부에 대한 요인(5문항),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요인(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의 Cronbach's α 값은 총 .90이며,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요인 .73,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요인 .68, 학교공부에 대한 요인 .72,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요인 .84이었다.

3) 학급응집력

학급응집력은 강신석(2000)이 초등학교 고학년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측정도구는 총 20문항으로 학급 분위기(4문항), 상호신뢰(4문항), 사기(4문항), 일체감(4문항), 의사소통(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급응집력은 5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정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다. 본 연구의 문항간 신뢰도는 총 .93이며, 학급 분위기 .71, 상호신뢰 .81, 사기 .69, 일체감 .61, 의사소통 .72이었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학교단체 수련활동 경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PSS 23.0을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학교단체 수련활동 경험의 참여횟수, 참여정도, 참여만족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ANOVA와 Scheffe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총 350명 중 남학생은 183명(52.3%), 여학생은 167명(47.7%)이었으며, 5학년은 177명(50.6%), 6학년은 173명(49.4%)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50)

구분		N	%
성별	남	183	52.3
	여	167	47.7
학년	초등학교 5학년	177	50.6
	초등학교 6학년	173	49.4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의 차이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2>, <표 3>과 같다. 성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2>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의 차이

(N=350)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학교생활적응	남	183	4.04	.60	-.89
	여	167	4.09	.49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남	183	4.09	.67	-.28
	여	167	4.11	.55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남	183	3.90	.70	-.57
	여	167	3.94	.63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남	183	3.93	.70	-.25
	여	167	3.95	.65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남	183	4.24	.69	-1.90
	여	167	4.37	.58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학급응집력	남	183	3.63	.73	.44
	여	167	3.59	.67	
학급분위기	남	183	3.57	.80	-.54
	여	167	3.62	.76	
상호신뢰	남	183	3.57	.89	1.16
	여	167	3.46	.83	
사기	남	183	3.86	.79	-.02
	여	167	3.87	.77	
일체감	남	183	3.54	.80	.84
	여	167	3.47	.70	
의사소통	남	183	3.59	.87	.43
	여	167	3.55	.72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t=-2.02, p<.05$)과 학급응집력의 하위요인인 학급분위기($t=-2.11, p<.05$), 상호신뢰($t=-2.38, p<.05$), 일체감($t=-2.25, p<.05$), 의사소통($t=-2.23,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6학년이 5학년보다 점수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3〉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의 차이

(N=350)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t
학교생활적응	5학년	177	4.02	.57	-1.71
	6학년	173	4.12	.53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5학년	177	4.06	.64	-1.15
	6학년	173	4.14	.59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5학년	177	3.85	.69	-2.02*
	6학년	173	3.99	.62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5학년	177	3.88	.70	-1.67
	6학년	173	4.00	.66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5학년	177	4.27	.64	-.92
	6학년	173	4.34	.64	
학급응집력	5학년	177	3.52	.73	-2.41*
	6학년	173	3.70	.66	
학급분위기	5학년	177	3.50	.83	-2.11*
	6학년	173	3.68	.72	
상호신뢰	5학년	177	3.41	.86	-2.38*
	6학년	173	3.63	.85	

	학년	N	평균	표준편차	t
사기	5학년	177	3.80	.84	-1.61
	6학년	173	3.93	.70	
일체감	5학년	177	3.42	.76	-2.25*
	6학년	173	3.60	.74	
의사소통	5학년	177	3.48	.81	-2.23*
	6학년	173	3.67	.79	

*p<.05

3. 청소년수련활동 경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분석

1)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횟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분석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횟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와 같다. 학교생활적응(t=-3.05, p<.01)의 하위요인인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t=-4.26, p<.001),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t=-2.74, p<.01),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t=-2.22, p<.0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지만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횟수가 1회 이상인 청소년이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을 제외한 학교생활적응에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횟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N=350)

	참여횟수	N	평균	표준편차	t
학교생활적응	1회	282	4.02	.56	-3.05**
	1회 이상	68	4.25	.46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1회	282	4.07	.62	-1.69
	1회 이상	68	4.21	.56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1회	282	3.86	.68	-4.26***
	1회 이상	68	4.17	.51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1회	282	3.89	.68	-2.74**
	1회 이상	68	4.14	.65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1회	282	4.27	.66	-2.22*
	1회 이상	68	4.46	.56	

***p<.001, **p<.01, *p<.05

2)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분석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학교생활적응(F=11.99, p<.001)의 하위요인인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F=6.47, p<.001),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F=6.24, p<.001),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F=11.85, p<.001),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F=10.58,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교생활적응은 모두 '매우 적극적'이었던 청소년들의 점수가 높았다.

<표 5>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N=350)

역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학교생활 적응	매우소극적 ^a	15	4.06	.71	11.99***	c,d<e
	소극적 ^b	8	3.80	.61		
	보통 ^c	55	3.82	.66		
	적극적 ^d	119	3.93	.43		
	매우적극적 ^e	153	4.28	.50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매우소극적 ^a	15	4.17	.65	6.47***	c,d<e
	소극적 ^b	8	3.90	.49		
	보통 ^c	55	3.91	.73		
	적극적 ^d	119	3.97	.56		
	매우적극 ^e	153	4.28	.57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매우소극적 ^a	15	3.91	.75	6.24***	c,d<e
	소극적 ^b	8	3.65	.97		
	보통 ^c	55	3.72	.70		
	적극적 ^d	119	3.79	.56		
	매우적극적 ^e	153	4.11	.65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매우소극적 ^a	15	3.96	1.00	11.85***	c,d<e
	소극적 ^b	8	3.93	.34		
	보통 ^c	55	3.58	.78		
	적극적 ^d	119	3.78	.56		
	매우적극적 ^e	153	4.19	.61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매우소극적 ^a	15	4.19	.73	10.58***	b,c,d<e
	소극적 ^b	8	3.73	.99		
	보통 ^c	55	4.07	.76		
	적극적 ^d	119	4.17	.57		
	매우적극적 ^e	153	4.53	.54		

***p<.001

3) 청소년수련활동 참여만족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분석

청소년수련활동 참여만족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6>과 같다. 학교생활적응($F=8.90$, $p<.001$)의 하위요인인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F=9.25$, $p<.001$),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F=4.67$, $p<.01$),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F=5.00$, $p<.01$),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F=7.65$,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은 '매우만족'이었던 청소년들의 점수가 높았다.

<표 6> 청소년수련활동 참여만족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

($N=350$)

역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학교생활 적응	만족하지않음 ^a	9	3.59	.57	8.90***	a,b,c<d
	보통 ^b	35	3.86	.57		
	만족 ^c	114	3.96	.52		
	매우만족 ^d	192	3.93	.53		
담임교사에 대한 적응	만족하지않음 ^a	9	3.44	.49	9.25***	a,b,c<d
	보통 ^b	35	3.86	.64		
	만족 ^c	114	4.02	.56		
	매우만족 ^d	192	4.23	.61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	만족하지않음 ^a	9	3.64	.85	4.67**	c<d
	보통 ^b	35	3.78	.61		
	만족 ^c	114	3.79	.62		
	매우만족 ^d	192	4.03	.67		
학교공부에 대한 적응	만족하지않음 ^a	9	3.51	.83	5.00**	
	보통 ^b	35	3.72	.72		
	만족 ^c	114	3.85	.68		
	매우만족 ^d	192	4.05	.64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	만족하지않음 ^a	9	3.78	.47	7.65***	a,b,c<d
	보통 ^b	35	4.08	.72		
	만족 ^c	114	4.19	.65		
	매우만족 ^d	192	4.44	.60		

*** $p<.001$, ** $p<.01$

4. 청소년수련활동 경험에 따른 학급응집력 차이분석

1)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횟수에 따른 학급응집력 차이분석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횟수에 따른 학급응집력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학급응집력 ($t=-3.11, p<.01$)의 하위요인인 학급분위기($t=-3.52, p<.001$), 상호신뢰($t=-2.85, p<.01$), 사기($t=-2.97, p<.01$), 일체감($t=-2.36, p<.05$), 의사소통($t=-2.47, p<.05$)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횟수가 1회 이상인 청소년이 학급응집력 모두에서 점수가 높았다.

<표 7>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횟수에 따른 학급응집력의 차이

(N=350)

	참여횟수	N	평균	표준편차	t
학급응집력	1회	282	3.56	.71	-3.11**
	1회 이상	68	3.85	.59	
학급분위기	1회	282	3.53	.81	-3.52**
	1회 이상	68	3.84	.61	
상호신뢰	1회	282	3.45	.85	-2.85**
	1회 이상	68	3.78	.75	
사기	1회	282	3.81	.77	-2.97**
	1회 이상	68	4.11	.76	
일체감	1회	282	3.46	.77	-2.36*
	1회 이상	68	3.70	.64	
의사소통	1회	282	3.52	.79	-2.47*
	1회 이상	68	3.79	.80	

** $p<.01$, * $p<.05$

2)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학급응집력의 차이분석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학급응집력의 차이는 <표 8>과 같다. 학급응집력 ($F=5.98, p<.001$)의 하위요인인 학급분위기($F=4.02, p<.01$), 상호신뢰($F=3.46, p<.01$), 사기($F=7.42, p<.001$), 일체감($F=2.76, p<.05$), 의사소통($F=7.06,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학급분위기, 상호신뢰, 사기, 의사소통에서는 모두 '매우 적극적'이었던 청소년들의 점수가 높았다.

〈표 8〉 청소년수련활동 참여정도에 따른 학급응집력의 차이

(N=350)

역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학급 응집력	매우소극적 ^a	15	3.59	.87	5.98 ^{***}	c,d<e
	소극적 ^b	8	3.29	1.01		
	보통 ^c	55	3.34	.79		
	적극적 ^d	119	3.52	.57		
	매우적극적 ^e	153	3.80	.68		
학급분위기	매우소극적 ^a	15	3.55	1.01	4.02 ^{**}	c<e
	소극적 ^b	8	3.28	1.17		
	보통 ^c	55	3.36	.75		
	적극적 ^d	119	3.50	.68		
	매우적극 ^e	153	3.77	.79		
상호신뢰	매우소극적 ^a	15	3.63	1.04	3.46 ^{**}	c<e
	소극적 ^b	8	3.25	1.16		
	보통 ^c	55	3.26	1.01		
	적극적 ^d	119	3.42	.72		
	매우적극적 ^e	153	3.69	.84		
사기	매우소극적 ^a	15	3.77	.79	7.42 ^{***}	c<e
	소극적 ^b	8	3.59	1.09		
	보통 ^c	55	3.46	.87		
	적극적 ^d	119	3.81	.66		
	매우적극적 ^e	153	4.08	.75		
일체감	매우소극적 ^a	15	3.42	.79	2.76 [*]	
	소극적 ^b	8	3.34	.93		
	보통 ^c	55	3.34	.84		
	적극적 ^d	119	3.42	.62		
	매우적극적 ^e	153	3.66	.78		
의사소통	매우소극적 ^a	15	3.60	1.05	7.06 ^{***}	c,d<e
	소극적 ^b	8	3.00	1.06		
	보통 ^c	55	3.29	.82		
	적극적 ^d	119	3.45	.64		
	매우적극적 ^e	153	3.80	.81		

*** $p < .001$, ** $p < .01$, * $p < .05$

3) 청소년수련활동 참여만족도에 따른 학급응집력의 차이분석

청소년수련활동 참여만족도에 따른 학급응집력의 차이는 <표 9>와 같다. 학급응집력(F=9.72, $p<.001$)의 하위요인인 학급분위기(F=5.04, $p<.01$), 상호신뢰(F=7.83, $p<.001$), 사기(F=10.87, $p<.001$), 일체감(F=7.77, $p<.001$), 의사소통(F=6.69, $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 간의 차이에 따르면, 학급응집력은 모두 '매우만족'이었던 청소년들의 점수가 높았다.

<표 9> 청소년수련활동 참여만족도에 따른 학급응집력의 차이

(N=350)

역량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학교 응집력	만족하지않음 ^a	9	2.92	.84	9.72 ***	a,b<d
	보통 ^b	35	3.26	.56		
	만족 ^c	114	3.53	.67		
	매우만족 ^d	192	3.76	.69		
학급분위기	만족하지않음 ^a	9	3.03	.75	5.04 **	b<d
	보통 ^b	35	3.27	.77		
	만족 ^c	114	3.55	.73		
	매우만족 ^d	192	3.70	.80		
상호신뢰	만족하지않음 ^a	9	2.64	.88	7.83 ***	a,b<d
	보통 ^b	35	3.18	.67		
	만족 ^c	114	3.43	.87		
	매우만족 ^d	192	3.67	.84		
사기	만족하지않음 ^a	9	3.25	1.17	10.87 ***	a,b,c<d
	보통 ^b	35	3.42	.71		
	만족 ^c	114	3.75	.76		
	매우만족 ^d	192	4.05	.72		
일체감	만족하지않음 ^a	9	2.75	.67	7.77 ***	a,b<d
	보통 ^b	35	3.21	.57		
	만족 ^c	114	3.44	.74		
	매우만족 ^d	192	3.64	.76		
의사소통	만족하지않음 ^a	9	2.94	1.01	6.69 ***	a,b<d
	보통 ^b	35	3.22	.57		
	만족 ^c	114	3.50	.71		
	매우만족 ^d	192	3.71	.84		

*** $p<.001$, ** $p<.01$, * $p<.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단체 청소년수련활동 경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성별은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에서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활동을 한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잘한다(전명순, 김태균, 2014)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학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중 학교친구에 대한 적응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급응집력 중 학급분위기, 상호신뢰, 일체감, 의사소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6학년이 5학년보다 학교생활적응에서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는 성장하면서 학교생활 적응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주계순, 2017)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둘째,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참여정도가 적극적일수록, 참여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는 결과는 선행연구(유진이, 2007; 이응택 외, 2016; 전명순, 김태균, 2014)와 동일하다.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횟수가 1회 이상인 청소년들이 학교친구, 학교공부,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에서 점수가 높았다. 청소년수련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모든 학교생활적응이 높았다.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참여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담임교사, 학교친구, 학교규칙에 대한 적응이 높다는 결과는 청소년의 체험활동만족이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이응택 외, 2016)와 비슷하다.

셋째,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횟수가 많을수록, 참여정도가 적극적일수록, 참여만족도가 높을수록 학급응집력이 높았다.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횟수가 1회 이상인 청소년들은 학급응집력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수련활동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은 학급분위기, 상호신뢰, 사기, 의사소통에서 점수가 높았다.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참여만족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모든 학급응집력에서 점수가 높았다. 이런 학급응집력은 구성원들의 적극적이며 협동적인 학급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채연희, 2003)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교육과정 일환으로 실시하는 학교단체 청소년수련활동 참여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을 향상시키므로 초등학생들의 학교·학급생활에 수련활동이 긍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단체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청

소년수련시설에서는 학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연계를 통해 학교단체 청소년수련 활동의 참여가 초등학교 고학년의 학교생활적응과 학교응집력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또래와의 조화로운 관계형성 여부와 학교환경에 대한 적응정도, 학급 구성원에 대한 매력정도 등과 같은 변화들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학교 중심이 아닌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욕구를 통해서 청소년수련활동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경쟁이 아닌 상호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며, 공동의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장소라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이 공동체의식 및 소속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학교 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수련활동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본 연구의 표집은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 일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단체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만을 연구에 활용하였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역의 초등학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수련활동 참여횟수를 다양하게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에는 참여횟수의 변별력을 높여 학교 생활적응과 학급응집력의 차이를 비교한다면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장기간의 변화를 살펴볼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추후연구에서는 시간변화에 따른 추이를 통해 청소년수련활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강신석 (2000). 집단경험활동 프로그램의 역동적 경험이 학급의 사회적 응집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관우·남진열 (2011). 초기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 영역에 따른 공동체의식과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231-250.
- 김상미·남진열 (2013). 청소년 수련활동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 청소년복지연구, 15(4), 53-81.
- 김소희·권일남 (2008). 청소년수련활동 체험이 생활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

지, 5, 155-176.

김지선·진현정 (2017). 초등 고학년 여학생의 화장품 사용과 가족 응집력, 학교생활 적응과의 관계. 한국초등교육, 28(4), 303-314.

서울특별시교육청 (2019). 2019학년도 수련활동·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운영 안내.

심은실·김영혜 (2011).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외현적-내면적 문제행동의 관계: 자동차 사고의 매개효과. 초등교육연구, 24(4), 97-119.

엄인하 (2015). 초등학생의 학급응집력이 집단따돌림에 미치는 영향: 방관태도의 매개효과.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재충·이상진 (2012). 자발적 참가를 통한 청소년의 수련활동프로그램과 프로그램만족 및 학교생활적응의 인과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1(2), 229-242.

유진이 (2007). 학교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학술대회, 129-144.

유희애·김영혜 (2017).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11), 33-52.

이광호·변윤연 (2007).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활동 의미와 제도적 수용에 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5(3), 49-61.

이미리 (2003). 청소년기 행복감 수준의 일상 맥락변화에 따른 다양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193-209.

이응택·곽현·이은경 (2016). 청소년의 체험활동만족 및 참여수준과 삶의 만족에 대한 종단 연구: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2), 345-370.

이학래·김석규 (2003).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가유무와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체육과학, 23(23), 63-77.

임지현 (2009). 아동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기술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전명순·김태균 (2014). 청소년활동이 학교생활적응, 학습습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38, 71-90.

정미 (2004). 또래상담 활동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교우관계와 학급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계순 (2017). 청소년활동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채연희 (2003). 또래상담 운영이 또래상담자의 자기평가와 학급 응집력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Hattie, J., Marsh, H. W., Neill, J. T., & Richards, G. E. (1997). Adventure education and Outward Bound: Out-of-class experiences that make a lasting differ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7(1), 43-87.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 Sears, J. T., & Marshall, J. D. (1990). *Teaching and thinking about curriculum: Critical inquiries*. Teachers College Press.
- Yalom, I. D. (199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Basic books (AZ).

Abstract

Analysis of difference between school life adaptation and class cohesion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school group training activiti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im Hee Ae* · Chang Yo O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school life adaptation and class cohesion according to the experience of school group training activitie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tudy used 350 students in the 5th and 6th graders of 4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do,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sample T-test, one-way ANOVA and post-test. First, 6th grade students were more likely to adapt to schoolmates than the 5th grade, and the class atmosphere, mutual trust, unity, and communication were also higher.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gender difference in school life adaptation and class cohesion. Seco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differed in their adaptation to the homeroom teacher, school friends, school study, and school rul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participation, the degree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with participation in youth training activities.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class atmosphere, mutual trust, morale, unity, and communica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according to

* First Author : Master,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Welfare and Policy, Kwangwoon University.

** correspondiong author : Visiting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Welfare and Policy, Kwangwoon University.

the number of participation in youth training activities, degree of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Based on the abov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implications for the invigoration of youth training activities in school groups.

Keywords : youth training activity, school life adaptation, class cohesion

투고일 : 2020. 11. 27. 심사일 : 2020. 12. 20. 게재확정일 : 2020. 12. 24.